

## [보도자료] 세계 여성의 날, 전국 여성기업가 쿠팡 만나 로켓성장 “판로 열고, 매출 올라”

2023. 3. 8.

- 여성기업 우수제품 모은 기획전 상시 운영 여성기업과 소비자 사이 교두보 역할
- ‘여성기업 기획전’ 참여 기업 ‘쿠팡 효과’ ”두 달 만에 매출 44% 늘기도”
- 지난해 10월 여성경제인협회와 여성기업 판로 확대 지원 위한 MOU 체결

2023. 3. 8. 서울 - 팬데믹으로 인한 판로 중단, 치열한 시장 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국내 여성 기업자가 이끄는 중소기업들이 쿠팡에서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에 따르면, 지난 11월부터 열린 ‘여성기업 기획전’에 참여한 60개 여성 기업의 3개월간(2022년 11월~2023년 1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0% 늘었다.

쿠팡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창업가들의 성공 사례를 공개했다.

쿠팡은 지난해 11월부터 여성기업의 우수제품들을 모아 ‘여성기업 기획전’을 열고 상시 운영해왔다. 해당 기획전은 지난해 10월 쿠팡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하 여경협)가 여성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체결한 MOU의 일환으로 여경협 소속 60개 기업이 참여한다. 쿠팡은 여성기업이 판매하는 식품, 생활용품, 주방용품, 유아용품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2000여 개 상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판매했다. 이처럼 유통사에서 여성기업 상품을 모아 기획전을 열고 지원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여성기업 기획전에 참여해온 베이커리 전문 중소기업 디엔비는 올해 1월 불과 두 달 전인 2022년 11월보다 매출이 44% 성장했다. 디엔비는 코로나로 매출 30%를 담당하던 군납과 학교 급식 납품이 중단돼 위기를 맞았지만, 쿠팡을 비롯한 온라인 판로 개척으로 돌파구를 찾은 사례다. 2020년 0% 수준이었던 온라인 매출 비중은 현재 20%까지 늘었다.

신영이 디엔비 대표는 “판매부터 신선 배송까지 쿠팡이 다 알아서 관리해주니 제품의 품질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며 “쿠팡 여성기업 기획전을 통해 온라인몰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우수 여성기업 제품이 쿠팡의 약 1800만 고객에게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여성기업 기획전’ 참여 기업 매출

약 30% 증가



\*2022년 11월~2023년 1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coupang

요거트 전문 중소기업 의진은 쿠팡에서 도약한 사례다. 요거트, 치즈 등을 공급하는 의진은 우수한 품질을 갖추고도 대기업 중심의 국내 유제품 시장의 특성상 여러 오프라인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선택받고 자리잡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 복잡한 유통 단계를 거치다 보니 고객에게 전달되기까지 최상의 신선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의진은 제품 신선도를 유지하며 고객의 문 앞까지 전달될 수 있는 로켓프레시에 입점하고 2022년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마케팅 활동도 시작했다. 덕분에 훨씬 많은 고객에게 노출됐고, 매출도 크게 늘었다. 의진의 작년 4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300% 이상 성장했고, 올해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국내 유제품 시장에서 자리를 잡은 셈이다.

천송이 의진 대표는 “소비자가 신선하게 제품을 받아볼 수 있는 로켓프레시를 통해 제품의 접근성과 신선도를 끌어올릴 수 있었다”며 “쿠팡에서 입소문을 타며 주문량도 늘고 재구매율도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디엔비와 의진의 제품은 현재 여성기업 기획전에서 로켓프레시로 만나볼 수 있다. 쿠팡은 여성기업의 판로 확대에 대한 여경협 고민을 해소하고 제품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등 여성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정한 여경협 회장은 “쿠팡 여성기업 기획전은 우수 여성기업에 제품 홍보와 판매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쿠팡을 통해 계속해서 여성기업의 성공사례를 발굴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도 협회는 여성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고, 실력 있는 여성들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는 “쿠팡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최선을 다해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을 응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성기업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mailto:media@coupang.com)